

<b>주가</b>	<b>환율</b>	<b>금리</b>
-0.20 1,354.06 (코스피지수)	+1.90 957.30원 (원/달러)	-0.03 4.5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77.43	(-0.82)
다우(18일)	11,992.68	(+42.66)
나스닥(18일)	2,337.15	(-7.80)
닛케이	16,551.36	(-101.6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64엔	(-0.43)
유로 달러 환율	1.2532달러	(-0.09)
3년만기 회사채	4.87%	(-0.04)
클링리	4.48%	(보합)

## 호남 우량기업들 상장 꺼린다

국내 주식시장의 꽃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호남 지역에 상당수있는데도 기업주들의 폐쇄적인 경영과 무관심 등으로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양대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 기업수를 합해도 대구 1개 도시 수준인 전체의 2.58%에 불과해 적극적인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우량 주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상장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 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상 기업 82개사

### 요건 갖춘 120개사 중 '상장 설명회' 신청 5개사 뿐 폐쇄적 경영·기업공개 부담... 자금조달 혜택 못 누려

(광주 26개, 전남 34개, 전북 22개), 코스닥시장 상장 대상 기업 38개사 등 총 120개사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대상 기업에는 삼성증권 전자자를 비롯해 한국바스프, 현대삼호중공업, 빅마트, 해양도시가스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이 즐비하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이상된 기업으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300억원 등 3년평균 매출액 200억원이상, 3년 합계 이익액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각

각 50억원과 10%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있다.

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억원이상, 최근 사업년도 이익액 20억원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한국면아, 무등, 연호전자 등 38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20일 오전 10시 광주 센트럴광화호텔에 마련한 지역순회 상장설명회에 참가의사를 밝힌 곳은 5개사에 불과하

유가증권 시장 상장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항목	상장요건	항목	상장요건	항목	상장요건
경과연수	3년 이상	경과연수	3년 이상	재무형태	요건
재무형태	요건	재무형태	요건	자기자본	최고 사업년도
자기자본	최고 사업년도	자기자본	최고 사업년도	매출액	없음
매출액	3년 평균	매출액	없음	이익률 / 이익액	ROE
이익률 / 이익액	ROE	이익률 / 이익액	ROE	이익률 / 이익액	최고
유보율	50% 이상 (대형기업 25%)	유보율	자본잠식이 없을 것	유보율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감사요건	최근 2년 적정 또는 한정	감사요건	최고 사업년도 적정유지	감사요건	최고 사업년도 적정유지

※ 대형법인: 자기자본 1,000억이상 법인

는 등 기업공개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지역기업들이 기업공개에 무관심한 이유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투명경영과 공시 전담인력 배치 등 상장요건에 미흡한 점이 부담을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경영 마인드 때문이다.

이로인해 17일 현재 호남지역 상장법인 수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을 합해 전국 1천263개 가운데 2.58%인 42개

(광주 13개, 전남 12개, 전북 17개)로 41개인 대구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 김훈휘 소장은 "82개 유가증권시장 상장대상 지역기업중 회사를 발행한 곳은 11개사에 불과하다"며 "상장을 하게되면 기업은 이차부담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우량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갖는 등 지역민 모두에게 이점이 많은데도 관심이 없어 이런 혜택을 못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경련 '호남경제 활성화' 간담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두번째 광주·전남북지역 회원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회원사에서 채동석 삼성광주전자 부사장 등 16명, 전경련에서는 하동만 전무 등 4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사들은 ▲지역인력 양성방안 ▲환율위기에 따른 지역수출업체 지원 ▲분양부진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경영난 타개방안 ▲중소기업 대출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일보사-여성경제인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특강

제 20회 여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산학협동연구원 회원 등 200여명이 공병호 소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대박 꿈' 기대... 빛내서 주식투자

#### 주식담보 대출 규모 최근 3년 124% 증가

944억원으로 2003년의 2조4천483억원에 비해 124% 증가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이 1조7천4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증권(3천855억원)과 한국투자증권(3천835억원), 대신증권(3천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주식담보대출의 증가는 여유자금의 부족에도 증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빛내주 주식에 투자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와 증권금융의 담보대출 규모는 5조4천

### 덴토존 '치과용수 살균 시스템' 인기

오존살균 워터시스템 전문기업 (주)덴토존이 개발한 '치과용수 오존살균 살균시스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치과용수의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의 치과정수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바이오 필름'을 완벽하게 억제해 국제특허 및 유럽의 CE(품질인증) 등을 획득했다.

덴토존은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공군사관학교 소속치과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약, 향후 브랜드 인지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02)867-2828.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무한 정보 담는 '갈매기형' CEO 패러"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은 혁신주도형 CEO는 고정관념과 선입관 때문에 새로운 정보투입이 제한적인 '빨대형'보다 무한한 정보를 받아들여 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갈매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19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CEO 혁신포럼'에 강사로 나선 공 소장은 "기업 CEO의 미래 준비"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소장은 "10년 후 한국사회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늘어가는 추세가 뚜렷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생활화하는 CE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주도형 CEO는 '갈매기형' 인간이면서 시간경쟁에 성공한 인간이라는 게 공 소장의 지론이다. 늘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갖고 시간을 소비하라는 얘기다.

공 소장은 "특히 현명한 CEO는 사업이나 주력상품의 현주

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기업이 고정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는 '전략적 번복점'을 정확하게 읽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 소장은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라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창조적 긴장감을 유지하라 ▲직원들의 가치창출능력을 배양하라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장악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또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인 'SPI-1357 시스템'(http://www.spi.go.kr)을 이용, 정부기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통합검색과 지역내 상권분석에 대해 시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과 한국산학협동연구원 회원, 광주·전남중기청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공병호 소장

### '북 핵' 비상 상황 대비 중기청 등 지원반 구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수출입 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상황반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각종 문제점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출상대국들의 과민반응과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 외국바이어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光銀 신입공채 경쟁률 200대1 '사상최대'

광주은행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200대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신입사원 입사지원 서류를 접수한 결과 3천786명이 지원, 200대1에 가까운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20명 인원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10~18일까지 입사지원 서류를 마감한 광주은행은 26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1차면접, 신체검사, 2차면접, 직무면담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민해경**

부킹천국 100%



**김수희**

10월 26, 27일

## 오르출연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호텔 옆)